

CIS 경제통합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ljy@kiep.go.kr

Sherzod Shadikhodjae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sherzod1@kiep.go.kr

황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전문연구원
hjdream@kiep.go.kr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spark@kongju.ac.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한 이후, CIS는 자주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해 왔으나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음.
 - 특히 CIS는 창설 당시 초국가적인 기구가 아니라 느슨한 연합체였기 때문에 회원국 간에 체결된 수많은 협정과 조약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
 - 결국 CIS는 회원국들의 협상을 위한 일종의 ‘모임 장소이자 논의의 플랫폼’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일부 CIS 회원국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CIS 국가들의 노력 결과 2010년부터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 간의 관세동맹이 창설, 발효됨으로써 CIS 역내 경제통합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함.
 -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도입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역내 세관통과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관세동맹 설립과정을 완료함.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기준 인구 1억 6,750만 명에 GDP 규모가 1조 6,775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66%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시장이며,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40%와 석유매장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자원부국들임.
 - 또한 관세동맹 3개국의 교역액은 8,145억 8,750만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2.67%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수출액은 4,824억 8,980만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3.17%, 수입액은 3,320억 9,770만 달러로 전 세계 수입액의 2.18%임.

표 1. 관세동맹 3개국의 현황(2010년)

	인구(명)	GDP 규모 (10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벨라루스	9,490,500	54.71	5,765.04
카자흐스탄	16,316,050	142.99	8,763.58
러시아	141,750,000	1,479.82	10,439.64
관세동맹국 합계	167,556,550	1,677.52	-
CIS 지역 합계	274,575,477	1,951.92	-
관세동맹/CIS (%)	61.02	85.94	-

자료: World Bank Data(2011).

- 향후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타지키스탄이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바, 여기에 다른 CIS 국가들이 추가로 합류할 경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CIS권 경제블록 확대에 따른 과급효과가 주목됨.

■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기준 CIS 국가 전체 GDP의 약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까닭에 향후 한국의 대CIS 경제협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즉 관세동맹의 출범은 한국의 대관세동맹 무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진출하여 제조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관세동맹 출범 2년째를 맞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CIS 역내 경제통합 현황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 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관세동맹 통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CIS의 창설 배경과 한계점, CIS 역내 개별 통합그룹 현황, 관세

동맹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방안과 함께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 및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종합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2. 주요 연구내용

- 1991년 말 CIS가 창설된 이후 2009년까지 CIS 회원국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출범 당시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표 2. CIS 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실행 현황

	Arm	Aze	Bel	Geo	Kaz	Kyr	Mol	Rus	Taj	Tur	Ukr	Uzb
Arm	=			●		●	●	●	●		●	
Aze		=		●			●	○			○	
Bel			=				●	●			○	
Geo	●	●		=	○		○	●		○	●	○
Kaz					=	●	●	○	○		○	
Kyr	●				●	=	●	●			●	●
Mol	●	●	●		●	●	=	●		●	●	●
Rus	●		●	●	○	●	●	=		○	○	○
Taj	●				○			○	=			
Tur				○			●	○		=	○	
Ukr	●	○	○	●	○	●	●	○		○	=	
Uzb				○		●	●	○				=

주: 1) 국가약어 설명: Arm(아르메니아), Aze(아제르바이잔), Bel(벨라루스), Geo(그루지아), Kaz(카자흐스탄), Kyr(키르기스스탄), Mol(몰도바), Rus(러시아), Taj(타지키스탄), Tur(투르크메니스탄), Ukr(우크라이나), Uzb(우즈베키스탄).

2) ● 실행, ○ 체결을 의미함.

자료: Michael Roberts, Peter Wehrheim(2001),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WTO Accession of CIS Countries," *Intereconomic*, (November/December)

- 비록 예외 조항이 있긴 했지만, CIS 국가들 간에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일부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져 왔으나, 서류상의 협정에 머무른 경우도 빈번하였음(표 2 참고).
- 이 기간에 CIS 국가들이 체결한 다자간 협력체 중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라 할 수 있음.
- EurAsEC은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를 설립하고자 유럽연합(EU)과 유사한 공동경제구역 창설을 목표로 러시아를 비롯한 5개국이 2000년에 결성하였음.
- EurAsEC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 구축,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공동금융시장 설립, 단일화된 운송서비스 및 교통체계 구축, 공동에너지시장 설립, 공동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정책 합의 등을 기본과제로 정함.
- EurAsEC을 기반으로 2010년 1월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이 창설되어 발효됨으로써 CIS 역내 경제통합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에 체결한 관세동맹은 GATT 제24조상의 관세동맹 정의와 유사한 것으로,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고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 등 공동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관세동맹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추진되었지만 2010년 1월 1일 공동관세 및 비관세조치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3국간의 세관통과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관세동맹 설립과정이 완료됨.
- [표 3]에서 보듯이, 관세동맹 3개국 중 공동관세 도입 이전의 가중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관세가 가장 낮았고, 러시아의 관세가 가장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관세동맹 전후 각국의 평균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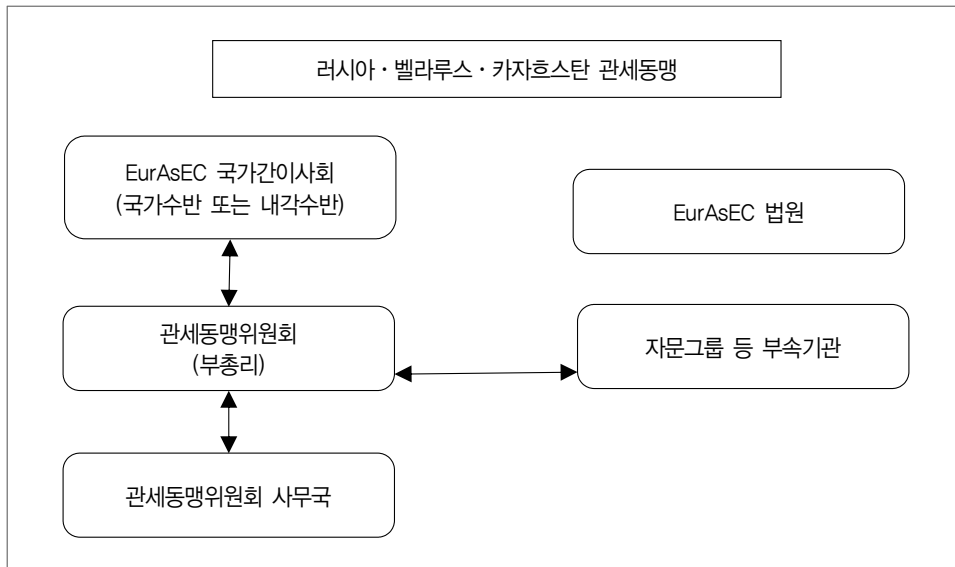
(단위: %)

국가	공동관세 도입 전			공동관세 도입 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단순평균관세율	10,6	10,77	6,16	10,6
가중평균관세율	12,34	8,04	5,06	10,89

자료: World Trade Indicators, World Bank.

- 현재 관세동맹은 [그림 1]과 같이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EurAsEC 국가간이사회, 관세동맹의 영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관인 관세동맹위원회, 관세동맹 회원국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을 다루는 EurAsEC 법원 등 완결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음.

그림 1. 관세동맹 조직도



자료: 관세동맹위원회 자료 정리(<http://www.tsouz.ru>).

- 현재 관세동맹의 역내 무역은 100% 완전 자유화되었고, 제3국에 대한 공동 관세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공동관세가 아닌 예외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통일됨.
 - 이제 제3국과의 교역에 대한 비관세장벽 중 수출입 금지조치, 수량제한 등의 규제는 대체로 GATT의 요건에 맞게 적용되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이전과 다르게 개별국가가 아닌 관세동맹 전체 차원에서만 적용이 가능함.
 - 또한 기술규제의 경우 관세동맹의 공동 기술규정이 채택되었거나 준비 중이며,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에는 관세동맹 영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이 3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안전성 검증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음.

- 관세동맹 3개국은 원래 관세동맹 형태로 WTO 동시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WTO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각자 개별 트랙으로 가입하기로 함.
 - 관세동맹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향후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는 러시아의 WTO 양허관세율에 맞게 조정되고, 해당 WTO 규범이 관세동맹 법제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임.

- 관세동맹과 제3국과의 지역무역협정(RTA) 추진정책은 관세동맹의 현행 법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CIS국가, 뉴질랜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베트남, 몽골 등과 FTA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전망됨.

- 우리나라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할 때 관세동맹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혜택은 이들 국가의 관세, 비관세 조치를 포함하는 무역정책이 통합되었다는 점에 있음.
 - 즉 이전과 달리 이제 우리나라 상품이 3국 중 어느 하나의 시장으로 진입하

면 다른 나라로 별도의 통관수속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기술규정, 위생·검역 요건 등을 한 국가에서만 만족시키면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점임.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3개국과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관세동맹 3개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 (약 84억 달러), 수입의 2.4%(약 10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임.
- 그러나 향후 관세동맹에 다른 CIS 국가들이 합류하여 관세동맹의 외연이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세동맹 간의 교역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파급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이 관세동맹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CGE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후생 수준은 약

표 4. 3국 관세동맹 형성의 거시경제적 효과(정태 CGE 분석)

(단위: %, 백만 달러)

	국내총생산 (실질)	후생평가금액	수출	수입	교역조건
러시아	0.11	764.1	1.06	1.80	-0.16
벨라루스	0.17	-126.7	0.97	-0.09	-0.80
카자흐스탄	0.01	6.8	0.01	0.03	0.01
한국	0.00	-4.0	0.00	0.01	0.01
일본	0.00	-13.1	0.02	0.01	0.01
중국	0.00	107.1	0.03	0.06	0.03
미국	0.00	-104.9	0.01	-0.01	0.00
EU	0.00	391.0	0.01	0.02	0.01
기타 국가	0.00	-323.1	0.00	0.00	0.00

400만~600만 달러 감소하여 3국 관세동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과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4 및 표 5 참고).

표 5. 3국 관세동맹 형성의 거시경제적 효과(자본축적 CGE 분석)

(단위: 백만 달러, %)

	국내총생산 (실질)	후생평가금액	수출	수입	교역조건
러시아	0.61	3286.02	1.42	2.08	-0.23
벨라루스	0.25	-108.62	1.08	0.04	-0.77
카자흐스탄	0.01	15.48	0.03	0.08	0.05
한국	0.00	-6.14	0.01	0.02	0.01
일본	0.00	-107.53	0.01	0.01	0.01
중국	0.01	197.69	0.04	0.07	0.03
미국	0.00	-281.09	0.00	-0.01	0.00
EU	0.00	367.03	0.01	0.02	0.01
기타 국가	-0.01	-584.04	0.00	-0.01	0.00

-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섬유/의류 그리고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 -0.17%, -0.08%로 그 크기는 미미한 수준임(표 6 및 표 7 참고).

표 6. 산업별 생산의 변화(정태 CGE 분석)

(단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기타
농림수산업	0.09	0.53	0.06	-0.01	-0.01	-0.01	-0.01	-0.03	-0.01
음식료품	0.19	0.57	0.05	0.00	0.00	-0.01	0.00	-0.01	0.00
섬유/의류	-5.45	-6.82	-0.28	-0.17	0.01	0.26	-0.01	0.00	0.00
화학	-0.19	1.62	-0.02	-0.02	-0.01	-0.02	0.00	0.01	0.00
철강 및 금속	0.39	2.53	-0.31	-0.02	-0.02	-0.06	-0.01	0.01	-0.05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0.99	1.25	-0.22	-0.08	0.09	-0.05	0.00	-0.03	-0.01
전기 및 전자	-10.56	-6.89	0.08	0.01	0.01	-0.06	0.03	-0.02	0.09
기계	-1.15	1.34	-1.10	0.10	-0.02	-0.01	0.01	0.03	-0.01
기타 제조업	-2.44	-0.98	-1.78	0.01	0.00	0.03	0.01	0.04	0.00
서비스	0.09	0.09	0.06	0.00	0.00	0.00	0.00	0.00	0.00

표 7. 산업별 생산의 변화(자본축적 CGE 분석)

(단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기타
농림수산업	0.33	0.56	0.07	0.00	-0.01	-0.01	0.00	-0.02	0.00
음식료품	0.69	0.58	0.05	0.00	0.00	-0.01	0.00	-0.01	0.00
섬유/의류	-4.65	-6.80	-0.28	-0.17	0.01	0.28	-0.02	0.00	-0.01
화학	0.37	1.64	-0.06	-0.02	-0.01	-0.01	0.00	0.01	-0.01
철강 및 금속	1.62	2.84	-0.39	-0.04	-0.04	-0.06	-0.03	-0.01	-0.09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1.77	1.36	-0.21	-0.07	0.08	-0.04	0.00	-0.02	-0.02
전기 및 전자	-9.40	-6.79	0.07	0.02	0.01	-0.04	0.02	-0.01	0.09
기계	-0.37	1.57	-1.09	0.11	-0.02	0.00	0.00	0.03	-0.02
기타 제조업	-1.70	-0.92	-1.81	0.01	-0.01	0.04	0.00	0.04	-0.02
서비스	0.69	0.18	0.07	0.00	0.00	0.01	0.00	0.00	0.00

- 한국의 산업별 수출 변동에 대한 정태 CGE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음.
 - 특히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섬유/의류 산업이며,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기계, 철강 및 금속으로 분석됨.
 - 한국의 대벨라루스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산업은 31% 이상의 증가율이 기대되는 자동차/기타 운송장비이며, 기계산업도 약 30%의 수출 증가율이 기대됨.
 - 반면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관세동맹 형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 변동을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는데, 정태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와 큰 차이는 없음.
 - 다만, 산업별 생산에서와 같이 수출이 증가한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더 커지고, 수출이 감소한 산업의 수출 감소율은 그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한국의 산업별·국가별 수출 변동(정태 CGE 분석)

(단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전 세계 총수출
농림수산업	-1.01	0.29	-0.32	-0.05
음식료품	-0.50	-1.64	-0.52	-0.04
섬유/의류	-28.13	-9.78	-0.36	-0.29
화학	-3.87	0.06	-0.51	-0.06
철강 및 금속	12.97	-1.01	-0.90	-0.03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6.29	31.3	-1.30	-0.12
전기 및 전자	8.65	14.98	-0.52	0.01
기계	26.69	29.98	-1.20	0.26
기타 제조업	19.02	25.75	-7.57	0.10

표 9. 한국의 산업별·국가별 수출 변동(자본축적 CGE 분석)

(단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전 세계 총수출
농림수산업	-0.37	0.69	-0.15	-0.01
음식료품	-0.43	-1.77	-0.68	-0.04
섬유/의류	-27.93	-10.06	-0.37	-0.29
화학	-3.51	-0.09	-0.62	-0.06
철강 및 금속	13.17	-1.93	-1.27	-0.06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5.94	31.13	-1.46	-0.12
전기 및 전자	9.25	14.96	-0.56	0.02
기계	27.14	29.66	-1.36	0.27
기타 제조업	19.33	25.45	-7.69	0.10

- CGE 모형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즉 관세동맹이 회원국 간 무역창출효과가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남.
- 또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비회원국과의 무역 증가율은 관세동맹이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작았음.
 - 이는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가 더 커서 회원국 간의 무역을 더욱 확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대비 관세동맹 3개국의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세동맹이 앞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타지키스탄 등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점차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동맹은 2012년부터 공동상품시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인 공동경제구역(SEZ)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 그럴 경우 관세동맹 3개국의 경제가 더욱 통합되어 각국 기업들이 상대국 인프라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정부조달 등의 프로젝트에 특별한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인력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임.
-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3국 관세동맹 간의 교역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세동맹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다른 CIS 국가들이 관세동맹에 참여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면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2012년부터 관세동맹이 공동경제구역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국 관세동맹을 비롯한 CIS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와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확대

- 현재까지 관세동맹 3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향후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관세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관세율이 낮아지고,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관세율도 따라서 감축될 것임.

- 그러나 이들 국가의 관세율이 감축된다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관세율 감축에 따른 수출 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력 수출품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해야 함.
- 업계, 무역 관련 협회 및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을 점검하고 해당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세동맹의 회원국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경우 관세동맹 회원국 간 무역 창출효과도 더욱 증가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국 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동맹 형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산업의 경우 3국 관세동맹에 대한 직접투자를 수출 촉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수출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본축적 CGE 모델을 이용한 산업별 분석을 기초로 각국에서의 생산 및 수출 증감률 효과를 측정된 결과, 카자흐

스탄을 제외하면 특히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 전기·전자제품, 기계산업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10. 산업별 생산 및 수출의 변화

구분	현지 국가의 생산			한국의 수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
음식료품	+	+	+	-	---	-
섬유/의류	---	---	-	---	---	-
화학	+	+	-	---	-	-
철강/금속제품	++	++	-	+++	---	---
자동차/기타 운송장비	++	++	-	---	+++	---
전기/전자제품	---	---	+	+++	+++	-
기계	-	++	---	+++	+++	---
기타 제조업	---	-	---	+++	+++	---

주: +(-): 1% 미만, ++(--): 1~5%, +++(---): 5% 이상.

2) 한국의 대관세동맹 투자진출 확대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발효 이후 동맹국 내에서 경제적 통제가 적어지고, 현지 생산 공장들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역내 관세국경이 폐지되면서,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이 대폭 확대되는 등 역내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이처럼 관세동맹 창설로 단일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무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동맹국에 대한 현지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관세동맹 3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출할 기업들도 관세동맹 역내 회원국들에 수출할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관세동맹이 발효됨에 따라 역내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은 관세동맹국과의 교역확대 외에도 어느 국가, 어떤 분야의 투자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관세동맹 출범 이후 생산지 전략 및 공급대상국 전략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동맹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세동맹 3개국의 투자 환경과 각국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한 후 현지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관세동맹 국가에 진출해 있거나 투자진출을 계획할 때 무엇보다도 관세동맹국 간의 조세제도와 조세부담률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수준 높은 통합 형태인 공동경제구역(SEZ)이 완전히 작동할 때까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관세동맹국 가운데 대체로 카자흐스탄의 조세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지만, 러시아에 비해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 벨라루스의 경우 다른 관세동맹국들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부동산 가격이 낮으며, 또 EU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IS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지 생산공장의 재배치를 고려하고, 단일시장만을 노린 투자진출이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의 관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현지진

출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관세동맹에 대한 유망진출 분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러시아는 아직 소비재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소비재를 비롯한 각종 제조업, 기계 및 운송장비, 플랜트, 의료기기 분야에의 투자진출이 유망함.
 - 특히 러시아는 2012년 상반기에 WTO 정식 회원국이 확실시되는바, 중장기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벨라루스의 경우 인구가 950만 명으로 비교적 시장이 협소한 편이고,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열악하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투자진출 여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벨라루스에서는 현지의 저렴한 임금, 다수의 숙련공 보유 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여 카자흐스탄, 러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유망 투자진출 분야는 IT(소프트웨어), 상용차(대형트럭, 광산용 특장차), 화학산업, 칼륨비료, 농기계, 건설자재, 식료품가공(육류, 우유, 야채), 농업 분야 등을 들 수 있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시설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정제, 가스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 진출과 더불어 최신 기술 및 설비를 활용한 농업, 축산업 및 축산가공업, 신재생에너지 및 혁신 부문의 진출이 유망함.
 - 특히 석유화학산업 진출은 카자흐스탄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인근 관세동맹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망함.
- 이 외에도 최근 관세동맹 회원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수평적 투자협력의 확대를 꾀할 시점이라 판단됨.
 - 이를 통해 한국과 관세동맹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확대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론이고, 러시아를 비롯한 관세동맹 국가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효과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3)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

- 관세동맹국인 러시아에 이어 향후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가 WTO에 가입하는 것은, 다자무역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됨.
- 특히 러시아의 WTO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관세동맹의 공동관세가 러시아의 양허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므로 향후 관세동맹의 일부 관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 즉 러시아의 상품 관련 WTO 가입 조건은 향후 관세동맹을 통해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사실상 적용된다는 점에서 WTO 회원국인 한국은 소위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4)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과 정책 시사점

- 관세동맹 국가들이 WTO에 가입한 이후 주요국들의 관세동맹 국가들에 대한 시장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함.
-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이들 시장을 선점하고 상호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및 에너지자원 협력

등에서 현저한 진전을 이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은 관세동맹 국가 중 러시아와 2005년부터 FTA인 ‘양자간 경제동반자 협정(BEPA)’을 추진해 왔으나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까지만 하고 아직 협상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FTA 논의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FTA 추진 시 관세동맹을 대상으로 한 상대국의 범위와 협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